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1월 S&P 종합 PMI 전월비 하락, 서비스업 경기둔화 신호 발신
 - 트럼프, 중국과의 무역 협상 언급하여 고관세 부과 가능성 다소 완화
 - 일본은행, 기준금리 25bp 인상해 '08년 이래 최고 수준
 - 푸틴, 트럼프와 우크라이나, 에너지 가격 등 현안 논의 희망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- 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하락[-2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반도체 등 기술기업 위주로 낙폭이 확대
유로 Stoxx600지수는 독일의 제조업 회복 기대감 속에 약보합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유럽 경제지표 호조와 일본의 금리인상 등으로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8% 상승, 엔화는 강보합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완만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
독일 국채금리는 2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27.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9.5원, 0.13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		1/24일	1/23일	전일대비			1/24일	1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101.2	6,118.7	-0.29%	국채 금리 10y	미국	4.62%	4.64%	-2bp
	유럽	530.07	530.34	-0.05%		독일	2.57%	2.55%	-2bp
	중국	3,252.6	3,230.2	+0.70%		영국	4.63%	4.64%	-1bp
	일본	39,932	39,959	-0.07%	CDS 5y	한국	34bp	34bp	+0bp
	한국	2,536.8	2,515.5	+0.85%		중국	55bp	56bp	-1bp
환율	달러지수	107.47	108.05	-0.54%	위험 지표	EMBI+	-	354	-
	유로화	1.0497	1.0415	+0.79%		VIX	14.82	15.02	-1.13%
	엔화	156.00	156.05	+0.03%		WII유	74.57	74.62	-0.07%
	위안화	7.2411	7.2862	+0.62%	원자재	구리	432.1	432.9	-0.17%
	원화	1,431.4	1,434.0	+0.18%		금	2,770.6	2,754.9	+0.5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월 S&P 종합 PMI 전월비 하락, 서비스업 경기둔화 신호 발신

- 1월 S&P 글로벌 종합 PMI가 52.4로 전월(56.6) 및 예상치(55.6) 대비 하락. 제조업 PMI는 50.1로 전월(49.4) 대비 상승하면서 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업 PMI는 52.8로 전월(56.8) 대비 급락하여 9개월래 최저
- 제조업의 경우 신규 주문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해외 주문이 감소하면서 지표가 상이. 제조·서비스업 모두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
- S&P 글로벌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지원 기대감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낙관론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. 다만 소비자가격 상승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
- 한편, 미시건대학교에서 집계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71.1로 전월(74.0) 및 예비치(73.2) 대비 하락. 미시건대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, 47%의 소비자가 실업률 상승을 예상했으며 이는 팬데믹 침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부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일본은행, 기준금리 25bp 인상해 '08년 이래 최고 수준

-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.25%에서 0.5%로 인상(찬성 8: 반대 1)하면서 17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. 일본은행은 정책금리 변경 후에도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완화된 금융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
- 2025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치는 1.1%로 기존과 동일하게 제시. 우에다 총리는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임금 인상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. 또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결정 등을 정책 운영에도 참고하겠다고 언급

■ 트럼프, 중국과의 무역 협상 언급하여 고관세 부과 가능성 다소 완화

-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더욱 공정한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. 작년에는 잘못된 무역정책 때문에 중국에 1조 달러를 잃었으나, 미국은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관세라는 카드가 있다고 설명. 다만, 관세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선호한다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미중 관계가 우호적이었다고 부연

■ 테슬라, 중국 전기차 업체와 함께 EU에 관세 소송을 제기

-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이어 EU를 상대로 관세 소송을 제기. 테슬라는 對유럽 수출 전기차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나, 다른 중국 업체들과는 달리 8%의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았던 만큼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

■ 푸틴, 트럼프와 우크라이나, 에너지 가격 등 현안 논의 희망

-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와 에너지 가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. 또한 바이든 前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거부했으나 이는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
-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사람이며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

■ IMF 총재, 전세계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

-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전세계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에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. 다만, 여전히 물가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강조

■ 미국 국무부, 대부분의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

- 루비오 국무장관은 보건, 교육, 안보 등의 해외 신규 자금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. 다만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비상식량 프로그램 및 군사 지원은 유지할 방침. Politico는 금번 조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포함되었다고 보도

■ 유로존 1월 HCOB 종합 PMI 확장세, 독일·프랑스도 개선

- 유로존 1월 HCOB 종합 PMI가 50.2로 전월(49.6) 대비 상승. 제조업 PMI는 45.1에서 46.1로 개선되었고 서비스업 PMI는 51.6에서 51.4로 소폭 둔화. 독일 종합 PMI(48.0→ 50.1)와 프랑스 종합 PMI(47.5→ 48.3)도 개선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(1/27~31일,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FOMC 금리결정(1/30), '24.4Q GDP(1/30), PCE 물가지수(1/31)
- 중국(1/28~2/4), 대만(1/23~31) 등 아시아 주요국 설 연휴 증시 휴장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